

목포시 고하도 해역의 어류상

최 윤, 라혜강, 정효진, 최문술
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과학부

서 론

영산강 하구인 전남 목포시 고하도 주변해역은 1981년, 길이 4351m, 높이 20m의 방조제가 건설된 이후 대불공단을 비롯하여 목포 신외항 건설 등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으며, 최근에는 고하대교의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고하도 해역의 어류생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해역의 어류를 채집하여 고하도 해역의 어류상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2002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조사 해역에서 자망과 정치망을 이용하여 12시간 동안 포획된 어류를 수거하였다. 채집에 이용된 자망의 길이는 15m, 망목 4×4cm이고, 정치망의 길이는 30m, 망폭 3×3cm이다. 채집된 어류의 동정 및 분류는 김 등(2005)과 Nakabo (2002)을 이용하였고, 분류체계는 Nelson (1994)에 따랐다.

결과 및 고찰

본 연구에서 채집된 어류는 모두 7목 16과 21속 23종이 채집되었다. 8월에 채집된 어류의 우점종은 정치망으로 채집된 전어 *Konosirus punctatus*이며, 10월에 채집된 어류에서는 뚜렷한 우점종이 없었다. 1월에 채집된 어류는 문치가자미 *Pleuronectes yokohamae*가 우점종이었으며, 특히 이 시기의 문치가자미는 모두 포란한 개체들이었다. 4월 조사에서는 황해볼락 *Sebastes koreanus*이 우점하였다. 본 연구 결과 겨울철 이 해역의 어류 분포의 특징은 산란기에 접어든 문치가자미와 풀망둑 *Synechogobius hasta*이 다량 서식한다는 점이다. 문치가자미의 경우 정액을 방출하기 직전의 수컷과 산란 직전의 암컷이 각각 8 : 2 정도의 비율로 어획되었다. 따라서 본 조사해역이 2월 무렵 문치가자미의 산란장으로 추정된다. 또 풀망둑의 경우는 어미의 포란 상태로 볼 때 문치가자미보다 약간 늦은 2월 이후부터 산란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.

한편 우리나라에서 김과 이(1996)가 신종으로 발표하여 인천과 군산 등 서해 중부 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 황해볼락 *Sebastes koreanus* 이 4

월에 이 해역에서 우점종으로 확인된 것은 본 종의 분포지가 기존의 인천과 전북 군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확대되는 결과로 우리나라 양볼락과 어류의 분포에 있어 주목된다.

참고문헌

김익수 · 최 윤 · 이충렬 · 이용주 · 김병직 · 김지현. 2005. 한국어류대도감. 교학사, 615 pp.

Nakabo, T. (ed.) 2002. Fishes of Japan with pictorial keys to the species, English edition. Tokai Univ. Press, 1749 pp.